

07 2027학년도 학과·계열

학과 이름에 속지 않는 법

같은 이름 다른 교육과정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	먼저 사실부터	2
02	무엇이 다른가	3
03	가르는 법	4
04	그래서 무엇을	5
05	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같은 이름 다른 계열 · 다른 이름 같은 공부 — 요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넷
- ◆ 이름이 감추는 세 가지 — 배우는 것 · 어느 단과대 · 어느 계열로 뽑는가
- ◆ 같은 이름 셋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
- ◆ 「배우고 싶은 것을 이름 말고 내용으로 적기」 부터 시작하는 차례

01 · 먼저 사실부터

이름은 대학이 정합니다

「경영학과면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?」

비슷한 곳도 있고 많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. 그리고 **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**. 학과 이름은 **법이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붙이는 것**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**같은 이름이 다른 것을 가리키고, 다른 이름이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**.

2027 수시 요강 6,482줄을 보면 이런 일이 흔합니다.

어떤 일	보기
같은 이름, 다른 계열	같은 이름인데 한 곳은 인문 , 다른 곳은 자연 으로 뽑습니다
다른 이름, 같은 공부	전자공학·전기전자·반도체 — 편제표가 겹칩니다
학부 안의 전공	학부로 뽑고 나중에 전공을 정합니다
계열이 나뉜 학과	같은 학과인데 인문·자연을 따로 뽑습니다

맨 아랫줄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. **같은 학과 이름이 요강에 두 줄로** 나오고, 각각 다른 수능최저와 다른 지정과목을 겁니다. 어느 줄에 지원하는지를 잘못 고르면 **최저가 어긋납니다**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. 개별 대학·학과 사례는 실지 않고 유형만 정리했습니다.

02 · 무엇이 다른가

이름이 감추는 세 가지

하나 — 배우는 것

가장 큰 차이입니다. 이름이 같아도 **교육과정**이 다릅니다.

같은 「미디어학과」인데 한 곳은 **영상 제작**이 중심이고, 다른 곳은 **언론·저널리즘**이 중심이고, 또 다른 곳은 **데이터·플랫폼**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. **4년 동안 배우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.**

둘 — 어느 단과대에 속하는가

이건 잘 안 보시는데 **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.** 같은 이름의 학과가 **공과대학에 있는 곳**과 **사회과학대학에 있는 곳**이 있습니다.

속한 단과대가 다르면 **졸업 요건·복수전공 범위·교수진·분위기**가 달라집니다. 그리고 **학위 이름도 달라집니다** — 공학사나 문학사냐가 나뉩니다. 취업이나 대학원에서 이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.

셋 — 어느 계열로 뽑는가

같은 학과를 **인문으로 뽑는 곳**과 **자연으로 뽑는 곳**이 있습니다. 이건 **지원 자격과 수능 반영에 곧장 걸립니다** — 자연으로 뽑으면 **수학 지정과목이나 과탐**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앞서 본 대로 최저 문장이 「**수학(미적분/기하)**」로 못 박힌 자리가 272줄, 15개 대학입니다. **학과 이름만 보고 고르면 여기서 걸립니다.**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. 학과 성격은 대학마다 다릅니다.

03 · 가르는 법

편제표가 답입니다

이름이 못 하는 일을 **편제표가 합니다**.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.

차례	무엇을	어디서
1	전공 필수 과목을 봅니다	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
2	어느 단과대인지 봅니다	대학 조직도
3	학위 이름을 봅니다	학과 안내 · 학칙
4	요강에서 계열과 지정과목 을 봅니다	모집요강
5	두세 대학을 나란히 놓습니다	차이가 그때 보입니다

5번이 요령입니다. 한 학과만 보면 「그런가 보다」로 끝납니다. **같은 이름의 학과 셋을 나란히 놓으면** 무엇이 다른지가 바로 보입니다.

전공 필수만 보시면 됩니다

교육과정 전체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. **전공 필수 과목 열 개 안팎만** 보셔도 그 학과의 결이 나옵니다. 선택 과목은 학생마다 다르지만 **필수는 모두가 듣는 것**이라 그게 정체입니다.

졸업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봅니다

학과 홈페이지에 **졸업 후 진로**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 「~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」는 가능성이지 **실적이 아닙니다**. 실제 통계가 있으면 그게 훨씬 값집니다.

확인 방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. 학과마다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고르는 차례와 점검표

학과를 고르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**이름에 안 속습니다**.

차례	무엇을	왜
1	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말로 적습니다	학과 이름 말고 내용 으로
2	그 내용을 가르치는 학과들 을 찾습니다	이름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
3	편제표 로 건춥니다	여기서 진짜 차이가 나옵니다
4	요강의 계열·지정과목 을 확인합니다	지원 자격이 걸립니다

1번을 말로 적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「경영학과 가고 싶다」가 아니라 「**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배우고 싶다**」로 적으면, 경영·경제·산업공학·통계까지 **후보가 넓어집니다**. 이름부터 정하면 그 넓이를 못 봅니다.

학과를 고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

☐ 배우고 싶은 것 을 학과 이름 말고 내용으로 적어 보았는가

☐ 그 내용을 가르치는 학과가 **여럿인지** 찾아보았는가

☐ 전공 필수 과목 을 읽어 보았는가

☐ 같은 이름의 학과 **둘셋을 나란히** 놓아 보았는가

☐ 어느 **단과대** 에 속하는지 확인했는가

☐ 학위 이름 이 무엇인지 보았는가

☐ 요강에서 **인문인지 자연인지** 확인했는가

☐ **지정과목** 이 걸려 있지 않은가

여덟째를 놓치면 원서를 못 씁니다. 자연으로 뽑는 자리에 수학 지정이 붙어 있는데 확률과통계를 골랐다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**학과 서열표를 외우게 하지 마십시오**. 그런 표는 **이름과 합격선만** 담고 있고, 이 자료가 말한 셋을 다 빼놓습니다. **편제표**를 읽는 데는 **학과 하나에 십 분**이면 됩니다. 다섯 곳이면 한 시간입니다. **그 한 시간이 4년을 정합니다**.

05 · 자주 묻는 것

학과 이름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학부로 뽑는 곳은 어떤가요?

앞서 다룬 무전공과 비슷한 구조입니다. 다만 범위가 좁습니다.

학부로 뽑으면 1~2년 뒤에 전공을 정합니다. 그러니 그 학부 안에 어떤 전공이 있는지와 전공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
인기 전공에 정원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. 「기계공학부로 들어가면 다 기계공학 하겠지」가 아니라, 그 학부 안에서 다시 걸린다는 뜻입니다.

확인할 것은 무전공과 같습니다 — 언제, 무엇을 기준으로, 정원이 걸리는 전공은 어디인가.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면 답해 줍니다.

Q. 학과 이름이 특이하면 취업에 불리한가요?

단정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생각해 두실 것은 있습니다.

이름이 낯설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. 「그게 뭐 하는 과인가요」를 여러 번 답하게 됩니다.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그리고 자격이나 면허가 걸린 분야는 학과 이름보다 이수 과목이 요건을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. 교원자격·기사자격 같은 것들입니다. 이름이 비슷해도 요건을 못 채우는 학과가 있습니다.

그러니 자격이 목표라면 학과 이름이 아니라 「그 자격 요건을 채우는가」를 확인하십시오. 학과 안내에 대개 적혀 있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학과 이름은 대학이 붙인 것이고, 4년을 정하는 것은 편제표입니다. 같은 이름 셋을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. 차이가 그때 보입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공개된 학과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. 개별 대학·학과의 사례와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. 학과 성격과 자격 요건은 대학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학과에 확인하십시오.